

2019 년 1 월 5 일 "(신년감사예배) 주 안에서 새사람으로 살기"(고후 5:16-17)

<도입>

사람을 깊이 알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이르러도 그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을 앎으로써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1]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 하노라'(16 절)

대개 인간적, 세속적 측면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하는 길을 육신을 따라 아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본다면,

(1) 전통과 문화적 습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은 예의를 어떻게 갖추는가 등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만족하면 상대에 대한 안정감과 호감을 느낍니다.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의 한 면입니다.

(2) 자신의 삶에 주어진 역할과 기능(생존과 성공을 위한)을 감당할 능력을 구비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안다고 말할 기준은 아닙니다.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계적이고 성공 지향적인 사회환경 속에서는 관계적 공동체의 진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고 폴 투르니에는 어린 아이를 양육할 때, 존중하는 인격적 관계 형성, 깊이 사귀는 능력, 삶에 대한 모험심과 감동하는 힘, 창조적 상상력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학교 교육이 주는 객관적 지식이나 잘 살기 위한 직업기능 훈련을 우선시합니다. 이것 또한 육신을 따라 아는 조건입니다.

(3) 종교적 잣대. 모든 종교인은 자기 종교가 말하는 진리를 알고, 체험까지 하게 되면 쉽게 상대의 신앙의 진정성과 성숙도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교회에서 선생들은 그리 하기 쉬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선생되기를 조심하라고 했고(3:1), 네가 누구인데 이웃을 판단하느냐(4:12)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새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합당한 조건이 됩니다.

[2] 새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세상을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진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여정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살고 죽으신 예수님 만이 아버지를 알게 하는 분이므로 구주요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17 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새 사람)은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14 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삶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을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깊이 신음하고 괴로운 삶은 관계 속에서 얽힌 상처와 판단과 비난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와 비난을 주는 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생기고, 자신을 방어하려는 행동 양식을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 자신에 대한 회의와 후회와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한탄합니다.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깡마르고 위축된 내면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내면의 바닥에 떨어져 일어서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나를 기뻐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또 묻습니다. 이렇게 못나고, 죄를 수없이 저지르는데도 사랑하시냐고요? 주님은 죄가 괜찮으시냐고요? 내면의 씨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것도 주님께는 괜찮을까요? 어떻게 그런 바울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강권하십니까(14 절)? 이에 주님은 무어라고 말씀 하실 까요? 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만 보아서 안 된다고 하실 것입니다. 원래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보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눅 15 장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죄를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께서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집 나갈 때에도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고백은 언제나 한결 같습니다.

습 3:17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있기 전, 하나님에 대한 반목과 배반의 죄악이 참담할 때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창조의 회복을 위해 새창조의 영광스러운 주역들로 회복시키기 위해 그러셨습니다.

[3] 사랑받는 자녀가 왕업을 감당한다

새 사람은 태초에 받은 생명의 복과 섬김의 권세를 회복한 존재로서 왕업을 감당합니다(송구영신예배). 복과 섬김의 권세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기쁨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주님 사랑에 대한 경험과 자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아버지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정당화 하시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 오신 목적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내 삶에 관계없는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삶에 회복하여 왕업을 감당함으로써 복과 권세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 사람으로부터 어떤 다른 특징을 갖습니까? 지금까지 가져온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보십시오.
2.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이 나를 어떤 새로운 경험으로 이끌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을 나누어 봅시다.